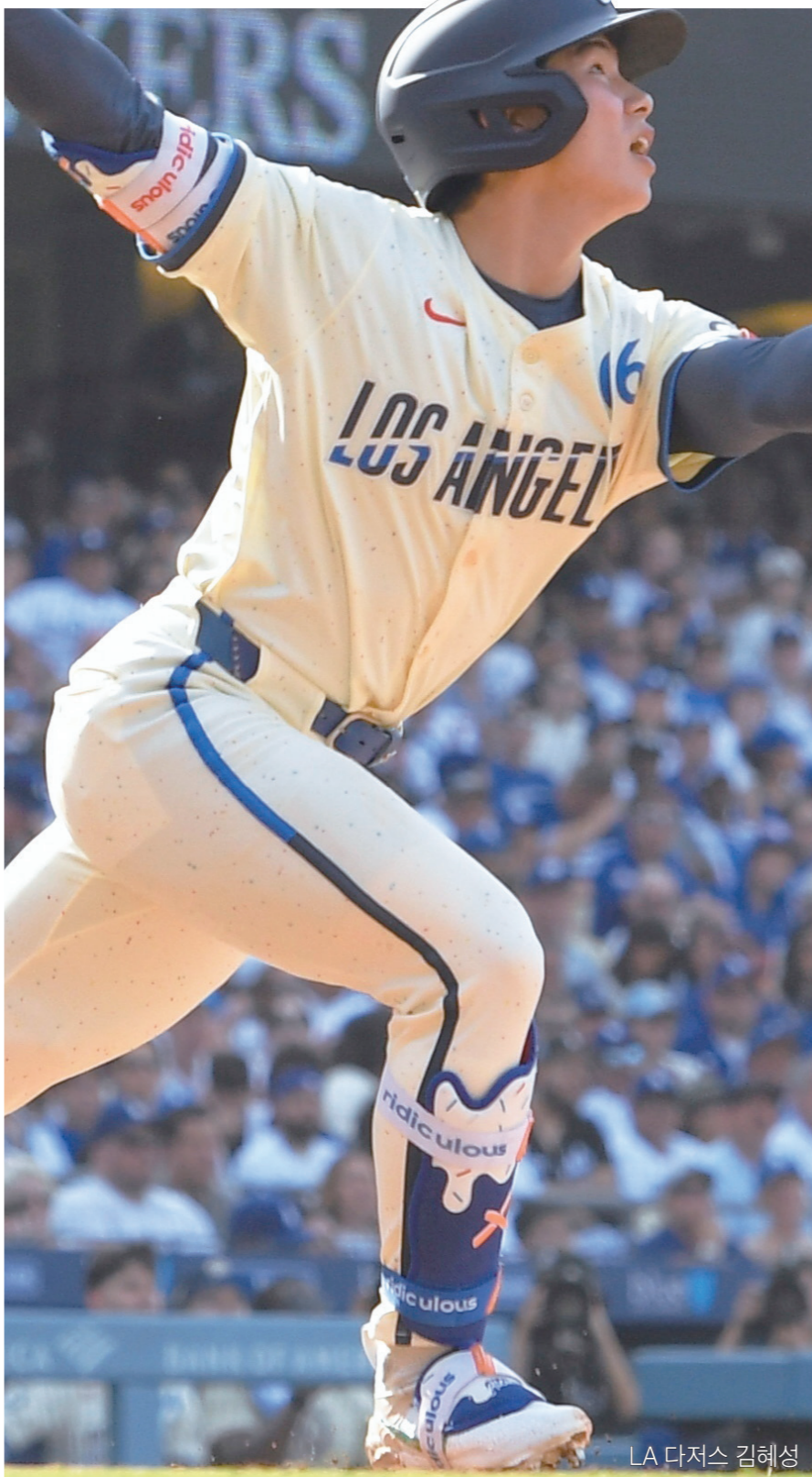


김혜성 '2호 홈런' 빅리거 듀오 맹활약 이정후 '멀티 히트'



LA 다저스 김혜성

김혜성, 닷새 만에 출격 투런포 양키스전 4안타·1볼넷 맹활약 첫 유격수 출전 호수비 '원맨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26)이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시즌 2호 홈런을 치며 공수에서 펼칠 날았다. 다저스는 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양키스와의 홈 경기에서 18-2로 크게 이겼다. 김혜성은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1개 포함 4타수 4안타 2타점, 볼넷 1개로 맹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66에서 0.422(45타수 19안타)로 급상승했다. 주전 유격수 무키 베츠의 발가락 부상으로 김혜성은 올해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선발 유격수로 나왔다. 김혜성은 올해 2루수로 9번, 중견수로 3번 선발 출전했고, 유격수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5월27일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온 이후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닷새 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김혜성은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출루한 뒤 2회 두 번째 타석에서 시즌 2호 홈런을 터뜨렸다. 팀이 8-0으로 크게 앞선 2사 2루에서 타석에 등장한 김혜성은 양키스의 두 번째 투수 좌완 브랜트 헤드리의 8구째 시속 148.4km 포심 패스트볼을 받아 쳐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날렸다.

이정후, 5일 만에 방망이 화끈 마이애미전 5타수 2안타 펄펄 시즌 5호 도루... 팀은 0-1 패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뛰는 외야수 이정후(26)도 닷새 만에 '멀티 히트' 활약을 펼쳤다. 샌프란시스코는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정규시즌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0-1로 졌다.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5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이정후가 한 경기 안타 2개 이상을 생산한 것은 5월27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4타수 2안타 성적을 낸 이후 5일 만이다. 1회 무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마이애미 선발 투수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2구째 시속 156km의 빠른 공을 받아 쳐 우전 안타를 때렸다. 타구 속도가 시속 167km를 넘을 정도로 잘 맞은 타구였다. 이정후는 이어진 1사 13루 기회에서 2루 도루에 성공하며 이를 연속 도루도 기록했다. 시즌 5호 도루다. 이정후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추가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카브레라의 3구째 시속 140.8km 슬라이더를 때린 공이 유격수 쪽으로 향했고 빠른 발을 앞세워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스키아델라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3주 동안 3개 新' 男 400m 계주... 올림픽 티켓 '부푼 꿈'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팀이 3주 동안 3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3번째 한국 신기록을 세운 날, 한국 육상은 아시아선수권대회 사상 처음으로 남자 400m 계주 금메달을 수확했다. 넘어야 할 허들은 많지만 한국 육상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한 번도 서지 못한 올림픽 남자

400m 계주 무대에 오르는 상상도 해 본다. 400m 계주팀은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 계주 결선에서 서민준(21·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19·예천군청), 이재성(24·광주광역시청), 이준혁(24·국군체육부대) 순으로 달려 38초49로 우승했다. 디펜딩 챔피언



엔 태국이 38초78로 2위, 홍콩이 39초10으로 3위를 했다. 이날 한국은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레슬링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에서 작성한 한국 기록 38초51을 0.02초 줄였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에 단골로 출전하고 결선 무대에도 자주 오르는 일본-중국을 추격하다 보면 한국에도 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릴 수 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육상 계주 출전권 배분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파리 대회와 비슷한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가 38초2대의 기록을 내야 LA 올림픽 남자 400m 계주에 출전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 기록을 0.2초 이상 단축해야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2025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남자 400m에 출전한 대표팀 선수들이 결선에서 1위로 들어온 뒤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혁(국군체육부대)·이재성(광주시청)·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서민준(서천군청). 연합뉴스

In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첨가, 관절 영양제

온라인 전용: 브로멜라인, 레시틴 풍부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